

# 민생당, 광주 동남을 김성환 '단수공천' 결정

### '컷오프' 박주선 "황당한 공천 수용 못해...재심 요청" 공관위,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엔 지도서 후보 의결

민생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4일 광주 동남을에 김성환 전 광주 동구청장을,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엔 지도서 전 전남도의회 의원을 각각 단수공천하기로 결정했다.

민생당 공관위는 전남 저녁 회의에서 지역구 70여곳에 대해 진행된 공천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당 관계자는 "공관위 논의 끝에 광주 동남을 지역구에 박주선 의원이 아닌 김성환 전 동구청장을 공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생당 공천과정에서 탈락한 현역은 박 의원이 유일하다. 그는 16대 총선 전남 보성·화순에서 처음 당선됐으며, 18·19대와 20대에서는 광주 동구 및 동남을 지역구에서 내리 당선된 바 있다.

공관위원들은 박 의원 공천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위원들은 박 의원이 4선 의원으로서 당에 기여한 바가 큰 데다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합당으로 민생당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역할한 점을 들어 공천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민생당 전신인 옛 국민당이 분열한 것과 관련해 박 의원에 대한 호남민심이 부정적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선수교체'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점이 잡혀지지 않자 공관위는 투표에 부쳤으며, 공관위원 9명 중 7명이 박 의원 컷오프(공천배제)에 표를 던진 것으로 전



김성환 지도서

해했다. 공관위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면서 "광주를 비롯한 전남지역에 던지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 결과에 반발하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경쟁력 조사나 면접도 없는 황당한 공천"이라면서 "응답할 수 없는 결과로, 재심요청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생당 공관위는 순천·광양·곡



박주선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김성환 민생당 김정화 공동대표가 24일 공동대표 최고위원회의의 참석차 국회에 도착한 뒤 박주선 의원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구례갑 후보로 지도서 전 전남도의회 의원을 단수추천했다. 이 선거구는 지도서·장성배 예비후보의

경선이 예상됐으나, 선거일정 등을 감안해 기 후보를 단수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지역 민생당 공천 후보들은 25일

오후 2시 목포 전남도당 사무실에서 총선 승리 결의를 다지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 다. /서울=강병은 기자

## 4·15 총선 레이다

### 이병훈 "백년가게 육성 소상공인 성공모델 확산"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예비후보는 24일 "대인시장·남광주시장 등 동구의 대표시장과 양림동 역사마을·충장로 등 특화거리 중심으로 백년가게를 발굴해 문화와 경제가 공존하는 광주만의 특색을 갖춘 장인가게를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젠트리피케이션 등으로 오래된 장인가게가 보호받지 못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가게가 쇠퇴함에 따라 골목상권 고유의 특성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소비자의 방문 역시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또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자생력 증진을 위해 백년가게 등을 발굴해 특화보존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과 장인 집적 중심의 특화거리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애란 기자

### 이용빈 "중기 육성 통해 경제균형발전 문 활짝"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예비후보는 24일 "중소기업을 육성해 대한민국의 경제균형발전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제21대 총선 중소기업 정책과제 집 전담식'에 참석해 중소기업 관계자

들과 기업 현황 및 문제점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그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안한 정책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다"며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성장,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는 성장, 분배가 공정한 성장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육성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일자리의 원천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받치는 원천이다"며 "중소기업을 육성해 저성장 시대 대한민국 경제균형발전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덧붙였다. /윤영봉 기자

### 민형배 "광주 '공공의료원' 설립 속도내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 예비후보는 24일 "메르스나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을 대비하고 시민들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공공의료원 설립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 7대 도시 중 광주·대전·울산만 공공의료원이 없다. 광주는 공공

의료기관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10만명당 의료종사자는 5.8명으로 특·광역시 중 가장 적다"며 "지역사회에서도 신종 감염병 등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말했다. 민 예비후보는 또 "이번 코로나19 비상상황에 투명한 정보공개



와 신속한 행정, '달빛동맹' 같은 연대와 협동으로 극복해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병실과 의료진 부족, 감염병 전문병원 부재 등 우리사회 공공의료의 빈틈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윤영봉 기자

### 김용재 "광주 태양광에너지 선도도시 육성"

김용재 정의당 광주 광산을 후보가 24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린뉴딜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광주를 태양광에너지 선도도시로 육성하고 10년안에 재생에너지 전략생산 비중을 40%까지 끌어올

리겠다"며 "기후위기를 대처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전략을 담당할 기후에너지부와 친환경에너지 전담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빛그린산단을 전기자동차 메카로 만들고, AI 집적단지가 들어서는 첨단3지구로 친환경에너지 자립도시로 조성



해 AI기반형 에너지기술을 발전시키겠다"며 "그린뉴딜 전환기금을 조성해 노동자 재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친환경일자리 제공을 위한 선순환 일자리정책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애란 기자

### 이용주 "코로나19 극복 위해 세비전액 반납"

이용주 무소속 여수갑 국회의원선거에 예비후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시민을 위해 국회의원 세비 전액을 반납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이 심각하고 장기화되고 있어 지역

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 등 여수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것이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서 당연한 자세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을 싣



고, 국민들과 위기 극복에 손을 맞잡기 위해 세비 전액을 반납하는데 동참하기로 했다"며 "이번에 기부하는 세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 신정훈 "남평읍 인구 2만명 자족도시 구축"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회순 예비후보는 지난 23일 남평지역발전협의회(회장 서주성)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인구 2만명의 자족도시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신 예비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강변도시 입주 이후 인구 1만2,000명을 돌파한 남평은 원도심과 자연부락을 아

우르는 지역발전의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라며 "빛가람혁신도시와 연계해 남평의 도시기반 편의시설과 교통망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신 예비후보는 또 "남평읍사무소와 5일시장 등 주요 거점지역에 대한 도로교



통망 정비를 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문화와 교육, 체육, 복지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남평종합복지문화센터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정근산 기자

www.goldlake.co.kr

## 나주호를 누리는 명품 골프클럽

나주호의 쾌적한 VIEW, 여유와 휴식을 함께 누리는 36홀 명품골프클럽 - 골드레이크 컨트리클럽

### 골드레이크 컨트리클럽

GOLDLAKE COUNTRY CLUB

수려한 산세와 나주호수를 그대로 살린 골드레이크 컨트리클럽의 프리미엄 서비스와 다양한 혜택을 경험하십시오

예약 문의

**061-339-3000**